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정책위원장 박상인 □사무총장 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www.ccej.or.kr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 재벌개혁운동본부(권오인 국장, 오세형 팀장, 김건희·정호철 간사 / 02-3673-2143)

- 시행 : 2020년 3월 11일 (수)

- 제목 : [경실련 총선거획]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총 3매)

경실련 총선거획, **가라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꿈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와는 다르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더 많은 의결권을 1주식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벌과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법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개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봄 발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21대 총선공약 2호로 내세우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

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진(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밝힌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투자유치에 오히려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큼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총선 정책 공약 2호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벌과 늘 함께 해온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발돋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재벌경영권 세습에 열심인 정당들-

가라!UP자

차등의결권 주의보

재벌 3, 4세가 벤처기업인이다?
거짓말 싫어머머~~




누르고 나르기로

Q. 차등의결권이란?

1주식 1의결권,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제도!

"차등의결권이 아니라도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이미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존재"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야당 때는 친재벌 정책이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이란 당론과 정면 배치돼
차등의결권을 지속 반대하여
친 재벌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함!**


**여당 되자 말 바꿔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 정당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관되게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해 온
미래통합당!**



"혁신적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 권성동 국회의원 -


"경영 경쟁제도가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어..."
- 정갑승 국회의원 -

Q. 이분들의 설명이 맞을까요?!

NO! NO!

"실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결국 재벌 총수 세습을 위한 꼼수가 될 것!"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벌경영권 세습에 열심인 정당들-

**재벌속원사업 해결해주려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재벌특혜정당은
21대 총선에서 OUT!**

"차등의결권"
잡으러 가자머머~~



누르고 나르기로

가라!UP자

21대 총선!!

SAVE THE ASSEMBLY

